



제약바이오 Analyst 허혜민 hyemin@kiwoom.com

Eli Lilly (NYSE: LLY)

3Q24 실적 시사점

◎ Eli Lilly

>> 실적 발표일 2024/10/30 발표 후, 주가 -6.28% 하락.

#국내 관련주: 비만 관련 종목

Eli Lilly 실적 발표 주요 내용

(\$ mn)

구분	3Q24	YoY	2024 가이드스	주요 제품
매출	11,439	20%	\$45.4~46.0bn (하향)	Mounjaro(제2형 당뇨병, 비만) \$3,113mn vs 3Q23 \$1,409mn
영업이익	1,526	239%	EPS: \$12.05~12.55 (하향)	Zepbound(비만) \$1,258mn Verzenio(유방암) \$1,369mn YoY +32% Trulicity(당뇨병) \$1,301mn YoY -22%

실적 주요 내용

- 당뇨병치료제 'Mounjaro' 및 비만 치료제 'Zepbound'의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
3분기 Mounjaro 매출은 \$3.11bn/ Zepbound의 매출은 \$1.26bn을 기록하며 각각 컨센서스 \$3.77bn, \$1.76bn 하회
→ 회사는 주된 원인으로 도매업체의 재고 문제를 언급. (마운자로와 켈바운드의 12개 용량 모두 확보에 어려움)
릴리 CEO는 켈바운드/마운자로에 대한 수요 감소 문제는 없고, 올해말까지 인크레틴 공급을 1.5배 이상 늘릴 계획.
- 추가로 지난 7월 \$3.2bn 규모로 진행한 'Morphic Holding' 인수와 관련된 비용 \$2.83bn 또한 3Q에 반영
- 주요 파이프라인 업데이트: 1일 1회 경구 비만 치료제 'Orforglipron', 2년 이내 품목허가 및 출시 기대
- 장중 한때 주가 -13%까지 급락하기도 했으나, 이날 주가는 -6.3% 하락 마감

(코멘트) 릴리 CEO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고 언급하면서도 11월 중순부터 본격 켈바운드 수요 촉진 마케팅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해 시장에서 수요 둔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 다만, 이러한 이유에 대해 릴리는 공급 확대로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
높은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으로 주가 하락하였으나, 비만 치료제 생산용량 확대와 광범위한 사용을 뒷받침하는 적응증 확대 결과 지속 발표 예상. 경구제형 Orforglipron 2025년 중반 3상 데이터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비만 치료제 여전히 메가 트렌드로 지속 될 것으로 보임. '25년에는 경구제형 제품간의 데이터 싸움이 될 것.

국내 관련 KEY POINTS !

- 국내 비만 관련주, 전일 대체로 주가 약세를 나타냄.
10/31일 펩트론 0%, 디앤디파마텍 -5.4%, 올릭스 -6.6%, 인벤티지랩 -3.45%, 삼천당제약 +6.2% 마감
- 릴리의 EPS 가이드스 감소 요인은 주로 연구개발 관련 지출(IPR&D)로 인한 것인데, 성장에 따른 R&D 재투자는 필수적으로 4분기부터 비만 치료제 생산 공급 확대 및 '25년 실적 개선에 따른 기술 도입 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
- 경구 비만 치료제 # 디앤디파마텍이 기술 이전한 미국 Metsera '25년 상반기 GLP-1 경구 제형 1상 결과 발표 예상되어 2025년 글로벌 경구제형 비만 경쟁 트렌드에 부합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31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li Lilly (NYSE: LLY)" 종목은 10월 28일 해외추천종목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